

# 평화

## 올여름 불교계 화두

### 참여불교세계대회 시발로 행사 잇달아

올 여름 불교계 화두는 '평화'다. 지난 20부터 5일간 용인에서 열린 '2003 참여불교세계대회'를 시작으로 불교계의 '평화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21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연수에서 종회의원들은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초청해 '평화변영정책과 남북관계추진 현황'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산적한 종단 현안을 제쳐두고 남북 문제에 대해 정부 고위 관리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 자리에서 정세현 통일부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향후 평화통일 노력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종회의원들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국제 평화 질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는 반응을 보였다. 8월3일 남원 실상사에서는 '지리산 평화결사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등 불교를 포함한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리산에 모여 평화를 외친다. 오후 2시 종교간세계평화위원회

### 지리산 평화결사추위 8월 3일 발족

### '2003 불교포럼' 내달 9~10일 보광사에서

위원회 현경 교수(미국 유니온신학대)의 '모성, 지리산,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한 평화강연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발족식은 평화의 등불 행진, 노고단에서의 생명평화기도, 체험마당 '내 안의 평화를 만나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체험마당에서는 평화의 솜대 만들기, 생

명평화의 등 만들기, 평화의 기도문 쓰기 마련된다. "불타고 있는 현대 세계를 통찰시키고 인간의 마음속에 화합과 화해의 불길을 당길 수 있는 종교는 이제 불교 외엔 없다."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일찍이 자신의 책 <21세기를 여는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인비의 말처럼 불교의 평화 사상을 현실에 접목시키려는 포럼도 열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8월 9-10일 이틀간 경기 파주 보광사에서 '2003 불교평화포럼'을 개최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조성된 심각한 위기상황을 국제관계와

경제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극복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9일 오후 4시 보광사 설법전에서 열리는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운명-북미관계의 실상에서' (연세대 박명림 박사),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관계' (서승 박사), '한반도 위기와 안보-평화비용과 전쟁비용에서'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지혜로운 대응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계속된다. '불교사상적 접근' (보광사 회주 효림스님), '시민사회의 대응' (성공회대 손혁재 교수), '통일운동의 활로' (통일운동가 장용철씨)에 대한 주제발표가 벌어진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오전에는 대웅전에서 반전, 반핵 평화정책을 촉구하고, 민족공조와 민족화합을 촉구하는 '2003년 불교평화선언문'을 낭독한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어 해수유통을 확대한다면 지금까지 쌓은 방조제나 배수갑문 등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측도 매립면허 변경방안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명호 부장은 "농지조성은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판명된 사안"이라며 "따라서 매립면허 변경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경 이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배수갑문과 관련해서는 "추가 갑문 설치보다는 교량을 설치해 자연스런 해수유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라북도·환경운동연대측 모두 찬성

### 불교 등 3대종교 노대통령에 해결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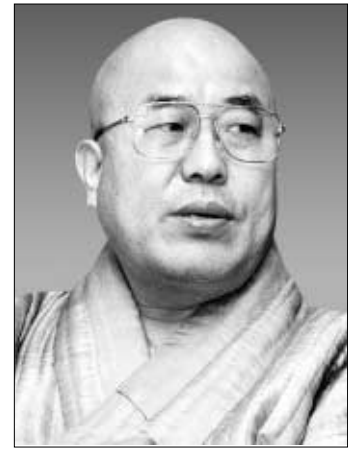
전라북도청 기획관실은 23일 "농지 중심에서 탈피한 복합산업단지의 새만금 신행관을 비롯해 복합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복합영농단지, 관광 레저단지 등을 조성해 황해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의 대안에 찬성을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제3의 배수갑문을 만들

한편 조계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 대통령은 여론을 정확히 헤아려 갯벌도 살리고 전복도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우·이동혁 기자

## 청소년 정책 지원 국민적 관심 필요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취임 100일 현성 스님

청소년 관련 62개 단체의 연합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가 올해 들어 괄목할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현성스님(동국학원 이사)이 4월 22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손발 맞추기'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로 청협 회장을 맡은 지 100일을 맞는 현성스님에게 그간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들어 봤다.



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설치 운영을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청협에서는 지난 2월 6일 '새정부 청소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였고, 또 문화관광부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 청소년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것을 건의 하셔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내셨는데 특별회의와 관련된 일을 하겠군요.

▲스님께서는 청소년 육성 및 교화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느끼십니까?

"청소년 육성사업은 미래 사회보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불교를 위해서는 청소년 포교에 가일층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에는 지식과 지혜와 창의력 등을 위한 인적 투자와 각종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기존 청소년 단체들에 대한 불특정 투자와 범 국민적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중요 사업'으로 추진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구성, 운영을 요구한 것은 참여정부가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청소년 정책이 한국사회에서 우선과제로 설정되고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 11월 중으로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를 실제 운영해 보고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청소년 분야 전문가 7명을 추천하였고 청와대와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컨텐츠를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청소년 사업과 별개일 수 없는 것이 교육 분야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 관련 작업에 청소년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대통령 청소년특별회의 내년부터 정례화

### 정부교육정책에 참여할 전문가 13명 추천

하신 것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개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은 물론 사회변화와 개혁을 위한 청소년 참여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위한 청소년 정책의 집행체이자 핵심적 고리의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 표현 및 제도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으며 청소년 업무의 분산으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협에서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개 단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시대 청소년 정책' 7대 핵심추진과제와 35개 세부추진과정을 개발하여 선거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청소년정책 분야 5개 부문 22개 과제를 제시하고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청소년

"청소년 교육 개혁이 몇 차례 시도되기도 했지만 실패한 것은 학교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유리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교육정책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통합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청소년전문가 13명을 추천하였고, 정부로부터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창립된 불교정보화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들의 정서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불교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공간에 대한 환상과 현실 생활 사이의 괴리감을 분명하게 극복시켜 주어야 하니까요. 집착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들을 청소년들에게 보급한다면 자신의 주체적식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연태 기자 yllm@buddhapia.com

### 정부, 갯벌매립면허 변경방안 검토

## 새만금사업 제2라운드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수경스님 등 삼보일배 성직자들이 새만금 갯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3대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매립면허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새만금 문제해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택 국무조정실장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사업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친환경적 개발과 경제성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희망을

반영해 매립지를 농지에서 산업, 연구, 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만경강 등 진강 유입수로 조성되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갯벌보호를 위해 방조제 갑문을 이용한 해수유통 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예정된 신시도, 가

력도 배수갑문 2개소를 이용하는 방안과 갑문을 확장하거나, 제3의 배수갑문을 설치해 추가로 해수유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전라북도측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3의 배수갑문 설치, 축소 개발론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 2003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수련대회

## 인사말씀

종단의 위상제고와 대승종도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 2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애종지념(愛宗之念)으로 종단 발전에 물심양면 기여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대자비의 원력을 내시어 수회동참으로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불기 2547년 8월 24일 ~ 8월 26일(2박 3일)
- ☉ 입소식 : 불기 2547년 8월 24일 오후 3시  
(단 입소식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입소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세면도구
-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상송리 392-10
- ☉ 교통편 : 1. 중부고속도로 → 증평 IC → 529번 도로 → 부흥 4거리 → 32번 도로 → 화양동국립공원 → 송면리 → 다보수련원  
2. 경부고속도로 → 청원 IC → 청주시 외곽도로 → 공군사관학교 → 미원 → 32번 도로 → 화양동국립공원 → 송면리 → 다보수련원
-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031)448-8811

후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중앙종의회 · 각 지방총무원 · 전국신도회

##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철 혜심 합장